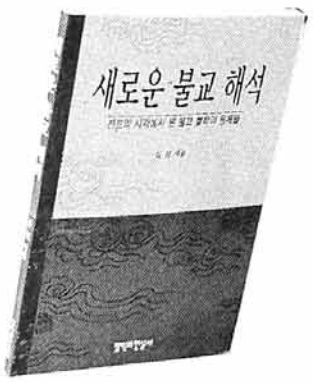
"칸트철학으로 불교접근 가능"

김진 울산대교수 '새로운 불교해석' 펴내

'자아통일·자유·보살도' 최고선 실현조건
무아설-윤회설 모순 '요청이론' 통해 해소



서양철학의 대명사인 칸트철학으로 불교를 해석할 수 있을까.

울산대 철학과 김진교수는 '칸트의 시각에서 본 불교철학의 문제들'이란 부제를 단 〈새로운 불교해석〉(철학과현실사 刊)이란 책을 통해 칸트의 '요청적 사유 방법론'이 부처님의 사상을 새롭게 해석하는데 대단히 유용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진씨

이 책은 불교적 세계관에서 제기되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가능성 조건이 무엇인지를 칸트의 '요청적 사유 방법론'을 통해 탐색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요청적 사유방법이란 무엇인가.

김교수는 칸트의 실천이성적 변증론의 과제는 '어떻게 최고선(最高善)의 실현이 가능한가'란 물음으로 집약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처럼 칸트철학에서 최고선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명제가 바로 '요청 명제'이며 칸트가 설정한 세가지 요청 명제는 '영혼의 불멸성', '자유', 그리고 '신'이라고 설명한다. 즉 칸트는 도덕법의 확실한 정초를 위해 최고선의 실현 가능성을 위한 조건들을 찾아보려고 시도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요청 이론'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적 문제를 '무아설'과 '윤회설' 사이의 모순에서 찾는다. 이 모순은 무아설이 모든 가능한 '자아' 개념을 부정하고, 윤회설이 도덕적 실천과 종교적 구원의 '주체'를 전제하는 사실에서 발생한다고 파악한다. 이로부터 다시 무아설과 윤회설에서 '자유' 개념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불교적 최고선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같은 세가지 난문을 해결하기 위해 김교수는 불교를 칸트의 요청적 사유 방법론으로 새롭게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김교수는 이 요청 이론을 통해 불교의 세가지 모순을 다음과 같이 해결하고 있다. 첫째, 다르마(法)이론과 카르마(業)이론에서 본 무아설로부터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모순은 항상 존립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자아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이론적 명제를 요청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둘째,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다르마적 세계 해석과 실천적 구원론 사이에서 제기되는 모순은 진지(眞知)로부터 자유롭게 결단할 수 있는 '진아(眞我)의 자유'가 요청된다. 셋째, 열반을 통해 도달한 신성성과 그에 부합되지 못한 행복사이에서 발생하는 번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살들이 함께 고통에 참여하는 '보살도'에 의한 니르바나(涅槃)적 세계 질서의 무한한 확장이 요청된다는 주장이다.

김재경 기자

선어록 읽으며 마지막 더위 '싹!'

'… 읽는방법'·나옹 백운스님 어록등 잇달아 발간

최근 운주사(대표 임희근)가 〈무문관으로 배우는 선어록 읽는 방법〉을 펴낸데 이어 민족사(대표 윤창화)가 〈나옹스님 어록〉〈백운스님 어록〉(무비 역주) 2권을 동시에 출간해 선어록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선어록 읽는 방법〉(추월용민·추월진인 저, 해원 역)이 구어체 위주의 〈무문관〉 해석을 통해 자연스럽게 선어록 해석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면, 민족사 발간의 두 어록은 두 스님의 어록 중에서 참선수행에 긴요한 법문을 가려뽑아 설법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현대적인 선어록 읽기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선어록 읽는 방법〉은 〈무문관〉을 원전으로 해 직접 읽어가면서 당시의 구어와 은어 및 주해로써 문법 설명을 면밀하게 해 놓아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제시한다.

〈나옹스님 어록〉은 〈나옹화상 어록〉 가운데서 선 수행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31편의 법문을 가려 뽑고 스님의 일생을 간추린 행장을 덧붙였다. 무비스님은 "나옹화상은 이른바 '삼한의 조실'로 받들어 온 종사로 무학스님의 스승이요 서산스님의 법원(法源)으로서 스님의 법어는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눈부신 빗장"이라고 해제를 달고 있다.

〈백운스님 어록〉은 조사선의 본디 뜻을 밝힌 '조사선'과 선교 교가 다르지 않음을 밝힌 '선교통론(禪敎通論)'을 통해 스님의 독특한 선관을 보여준다. 백운스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경〉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임제선 연구 | 종호스님 지음

중국 임제종 사상·수행특징등 조명

화제의 책

임제의현(臨濟義玄)을 종조로 하는 임제종은 송대 이후 조동종과 함께 중국 선사상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으며, 한·중·일 동양 3국의 가장 현저한 불교사상의 한 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고려 이후 임제 문하의 종고로부터 비롯된 간화선 위주의 임제선이 사상과 수행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동국대 강사인 종호스님이 박사학위('94년) 논문을 수정 보완해 단행본으로 출간한 〈임제선 연구〉는 중국 선종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임제의현의 선사상을 본격적으로 조명한 이 분야 최고의 기본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호스님은 "임제는 달마 육조 마조 등 위대한 선사들의 사상을 모두 섭용하면서도 이를 초월한 지극의 경지와 활조(活祖)로서의 생의 모습을 보여준 탁월한 선사였다"고 강조한다.

〈경서원 2만원〉

"야부선사의 저어(著語; 경문의 내용에 선적 체험에 의한 견해를 몇 마디 덧붙인 글)와 송은 격외선구(格外禪句)로 이뤄져 있어 반야의 밝은 안목을 갖출때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강경〉의 대표적인 주석서인 〈금강경오가해(五家解)〉 중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을…' 펴낸 원학스님

'금강경 야부송' 주석달아 첫 강설

야부(冶父)스님의 송을 역해·강설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을 꾸짖지 않는다〉(불지사 刊)를 펴낸 원학스님(조계사 부주지)은 선서화를 공부하면서 '금강경 야부송'에 더욱 애정을 갖게 됐다고 말한다.

원학스님이 처음으로 주석을 달고 강설한 이 책은 야부선사의 저어와 송을 통해 〈금강경〉의 참지혜의 길을 시적으로 보여 준다. 특히 불교학과 한학을 겸비한 수행자이자 선서화를 그리는 예술가로서의 섬세하고도 중후한 감성이 '금강경 야부송'을 더욱 아름답게 느끼게 한다.

성철스님의 상징처럼 널리 애송된 '산은 산, 물은 물'의 출처로 친근감을 더 느끼게 하는 '금강경 야부송'은 중국 선종의 황금시대인 송대에 나온 금강경 해설서의 백미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금강경 야부송'은 직역 위주의 번역서만 나와 있어 해독이 어려웠었다.

원학스님은 송나라 대혜 종고스님이 제상 장관 등의 사대부들에게 서신왕래를 통해 참선방법을 소상히 밝힌 '서장'을 번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재〉

◇'책방 여시아문'이 교계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통신판매에 대한 호응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국어디든 책배달 '고객 호응'

책방 여시아문 개점2년 통신판매 총매출 20%

불교계를 대표하는 불서전문서점으로 자리매김한 책방 여시아문이 23일로 개점 2주년을 맞는다.

그간 도서회원제를 통한 통신판매와 소식지발간 무료 배포, 편리하고 쾌적한 매장 조성과 불교관련 서지정보 제공,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부다피아'를 통한 다양한 불서정보 제공 등으로 불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여시아문은 개점 2주년을 전기로 원격판매 서비스인 통신판매를 더욱 활성화 하는등 독자위주의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여시아문이 불교계 최초로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통신판매 서비스제도는 우편 발송료를 전액 자체 부담하며 전국 어디든 통신으로 책을 판매해 큰 호응을 얻고있다. 처음부터 이익금보다 발송료가 더 드는 경우를 무릅쓰고 서비스를 지속해 이미 책방 총매출액의 20%를 넘어설 정도로 이용자가 늘고 있다.

매번 통신판매로 2~3백권의 불서를 다량 주문해 이미 1천여권 이상의 불서를 구입한 진우스님(전남 완도 신흥사 주지)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불서들로 조그마한 사찰도서관을 꾸미고 있다"면서 "우리처럼 산간오지에 위치한 사찰의 경우 통신판매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구매방법"이라고 말했다.

◇기사넘쳐 '명사추천 불서백선' 쉽니다.

출판화제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편 3권
가산불교연구원 개관 5년 기념출판

◇지관스님

왕족으로 출가해 천태종을 개창한 의천스님의 비문 및 묘지명 3편과 금산사 혜덕왕사와 단속사 대감국사 비문과 풍수지리에 능했던 옥룡사 선각국사의 비문 등 고려중기의 문화와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성과물을 담은 책이 나왔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지관스님은 연구원 개원 5주년에 맞춰 '한국불교금석문 교감역주(校勘譯註)' 시리즈 제4권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편 3권을 발간했다.

〈역대고승비문〉 신라편, 고려편 1, 2권에 이어 나온 이번 고려편 3권은 12세기에 만들어진 고려시대 고승들의 비문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고승들의 묘지명(墓誌銘)에 대한 주석작업도 사료적인 가치가 크다.

지난 91년 6월16일 개원 이후 교육 학술 출판 교화를 4대 주요사업으로 정해 눈부신 활동을 펼쳐 온 연구원은 학술과 출판을 연계해 지속적으로 출간하고 있는 금석문역주 시리즈로 고려 중·후기 고승들의 비문에 대한 교감역주 작업도 단행본으로 계속 발간할 예정이다. (02)765-9602

가정파탄 체험서 '물에 빠진…' 나와

아내가 종말론을 주장하는 광신적 기독교에 빠져 가정파탄을 맞은 한 가장이 쓰라린 체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종교와 종교인의 생활'을 촉구한 자서전 형식의 책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박근창씨(44)의 〈물에 빠진 자 구하지 마라〉(한림 刊)가 바로 그것.

아내의 잘못된 신앙생활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종교관에 의해 가정이 파괴되는 현실을 수없이 목격했다는 저자 박씨는 "더 이상 그릇된 종교관에 의해 불행한 가정들이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신념에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말한다.

박씨는 또 인간과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종교의 탈을 쓴 범죄단체를 규제하는 '종교 규제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교인들의 각성과 기독교의 거듭남을 촉구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우 학	좋은인연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3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법 정	샘터사
4	마음을 속이면 인생이 즐겁다	편집부	정 토
5	인간을 생각하는 다섯가지 주제	정승석	대원정사
6	한국사찰의 주련	권영한	전원문화사
7	사과꽃 떨어지면 사과 열리고	우봉규	우 리
8	영원한 대자유인	강정진	경서원
9	참선교육	현 담	수 선
10	그 마음을 바쳐라	김재웅	용 화

구입문의:(02)737-0695

김재웅 법사와 함께하는 금강경독송회! 이들의 현대적 수행담

분별은 바치고 마음은 밝은 곳으로

1부 : 금강경독송회 평신도님들의 신앙체험담
생활속에서 바치는 법을 실행하며 밝은 생활을 누리시는 따스한 이야기가 봄햇살처럼 가득합니다

2부 :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
지극한 부처님 시봉과 불같은 정진에 몰두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는 푸른 공기처럼 우리의 가슴을 적셔 줍니다.

금강경독송회 엮음

김재웅 법사의 세번째 책

그 마음을 바쳐라

신국판 267쪽/ 값 7,500원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지혜를 가로막는 일이니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버리라고 하면 아까울 것이니
그 마음을 바쳐라.
바치는 마음을 연습해서 남을 위해 살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마음이 우주에 가득차서 결국 부처님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 어디에 네가 있고 또 내가 있는가?
너, 나 없는 그냥 한마음 아닌가.

〈 백 선생님 법문에 〉

도서출판 용화/ 경북 영일군 흥해읍 성곡2동 1269/전화 (0562)61-2231/ 서울 연락처(02)742-0172
판매보급처/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 720-9372,9373/ 팩스 (02) 723-0646
금강경독송회/ 서울 해화법당(02)742-0172/ 포항 우현동 법당 (0562)47-0323/ 포항 금강정사(0562)61-2231

사진으로 보는 법보시용 경전

칼라판

쉽고 재미있는 생활불교 1
500대원불석가모니

쉽고 재미있는 생활불교 2
지장경

쉽고 재미있는 생활불교 3
장수멸죄경

어떤 중생이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오역죄를 범하였어도.
이 경을 자신이 쓰고, 읽고, 외우고, 지니거나, 남을 시켜 쓰게만 하여도.
그 죄업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살아서 선업을 맺지 못하고 악업만 잔뜩 지었다 해도.
명을 마친 뒤에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이 경으로 복을 닦으면, 업장이 소멸되어
죽은 뒤에 바로 인간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한림 엮음/신국판 칼라화보/값 각권4500원

법보시용으로 좋습니다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720-9372~3 팩스:723-0646